

근대미술사의 길을 닦는 '그림지도'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펴낸 최 열씨

우리 미술사에서 '근대'는 함몰된 지점이 다. 우리 근대의 문학과 예술 전반을 규정할, 이른바 '이식문화론'에 침윤되어 그 가치를 평가절하해왔기 때문이다. 조선시대가 문인화의 전통을 이으면서 한편으로는 김홍도·신윤복 같은 풍속화가와 솜씨좋은 '도화서' 출신 화가의 작품들로 좋은 시절을 구가했고, 현대미술은 철학적인 주제들을 다양한 이미지로 변용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담론이 넘치는 데 비하면, 근대미술에 대한 관심과 성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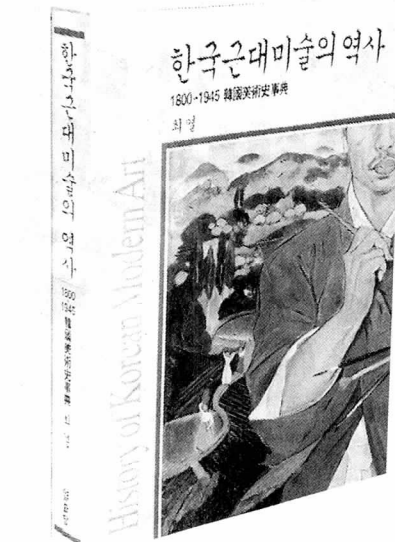
가치에 대한 공감 없이 연구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논문 한편을 쓰려면 자료를 모으는 데 기운이 다 빠진다. 이런 악순환에 안타까움을 느낀 미술사학자 최열씨(45, 가나미술연구소 기획실장)는 일제시대 미술계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한국근대미술의 역사》(열화당)를 펴냈다. 이 책은 우리 역사에서 자생적으로 근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던 1800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미술에 관한 모든 것을 연대기순으로 정리해 놓은 '사전(事典)'이지만 근대미술의 흐름과 그 특질을 일관된 관점으로 풀어쓴 출중한 연구성과다.

이념대립 등 크고작은 공백 매워

"처음에는 일제하의 화단사를 가볍고 재미있게 쓰려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자료가 거의 없어 근대미술을 한꺼번에 소화하는 그릇을 먼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미술사 연구에 가장 좋은 자료는 물론 미술작품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미술작품은 일제시기·해방·전쟁 등 험한 시기를 거치는 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많은 작품이 흩어졌거나 유실되었고, 전후의 극심한 이념대립은 우리 미술사에서 율복작가가 이론 성과를 도려냈다. 이로 인해 생긴 크고작은 공백은 근대미술사 연구를 단편적이고 소박한 비평수준에 머물게 했다.

연대기적 틀로 구성된 이 책은 연구자들 뿐 아니라 미술애호가들까지 만족시키는 사전적 역할을 맡고 있다. 각 시기 미술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렸는데, 비교적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 1919년부터는 한 해 단위로 이론활동·미술가·단체 및 교육·전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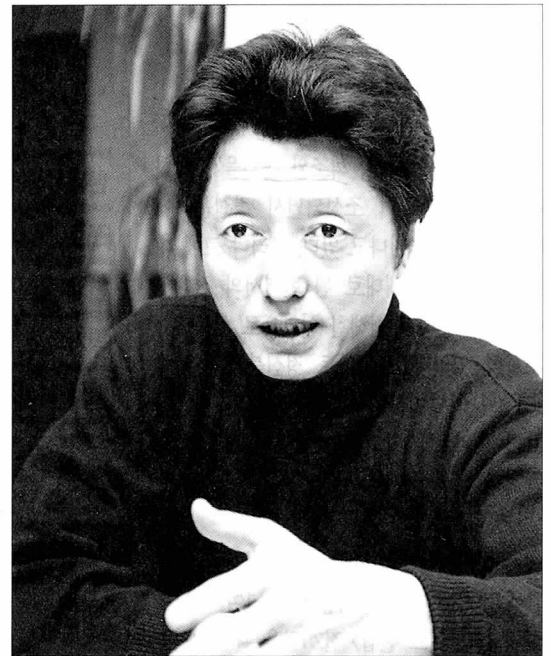
회로 세분했다. 모든 항목들은 잘게 나뉜 소제목을 붙임으로써 키워드 기능도 하고 있다. 각 부가 끝날 때마다 붙인 주(註)는 '찾아보기'와 함께 문헌목록의 역할을 하는 데 모자람이 없다. 하지만 이 책이 단순한 자료 목록에 그치지 않는 것은 거기에 투사된 저자의 관점 때문이다.

"미술의 근대화는 서구 문명의 유입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내부 생활의 변화가 근대화의 주요 동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관점은 그동안 퍼냈던 《민족미술의 이론과 실천》, 《근대 수묵채색화 감상법》 등에도 일관되게 드러나 있다. 19세기 중엽 김수철·남계우 등 신감각파의 등장은 도시 문화의 생활감정이 표현된 것으로 당시의 경제성장과 도시발달에 힘입은 것이다. 또, 중국회화의 도식적 모방이라고 비판받아온 19세기 말 장승업·안중식 등의 형식주의가 사실은 세기말 민족주의의 뜨거운 지향이었고, 식민지로 떨어진 조국에서 화가들은 향토성에 기대어 자주성을 드러냈다. 미술사의 흐름이 당시의 시대정신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식론'과 대립항에 놓인 '내재적 변화론'은 민족사의 변화가 미술작품의 경향을 어떻게 바꾸어왔는지 탐색하는 열쇠다.

유화의 형식은 분명 외부로부터 유입된 것이지만 1930년에 이르면 이론과 창작에 있어 이미 자기화를 성취하고 있다. 당시에 활약했던 오지호와 김주경은 조선의 자연풍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그려 '조선

《한국근대미술의 역사》는 우리 역사에서 자생적으로 근대화 움직임이 일어나던 1800년부터 해방 직후까지 미술에 관한 모든 것을 연대기순으로 정리해놓았다. 이제까지 크고작은 구멍이 많았던 '근대'의 미술은 이 '사전'으로 메울 수 있게 됐다.



최 열씨.

화된' 인상과 양식을 정립했다. 또한 이중섭과 이쾌대의 작품은 모던한 감각으로 그려졌지만 서구의 미의식에서 완전히 탈피해 전통의 향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저자는 이 모든 것을 내재적인 필요에 조응한 근대화 과정으로 읽고 있다.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도

"근대 미술사의 잘못된 몇 장면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성과는 1910년대 이후 우리 화단의 주도자가 동경 유학생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고희동이 발의하고 주도했다고 하는 서화협회의 창립이야기입니다."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희동의 자서전을 유일한 자료로 택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다. 고희동(1886~1965)은 대한 제국 장례원 예식관으로, 궁내부 출장명령을 받아 동경미술학교에 유학했다. 일본에서 준국빈 대우를 받았던 그가 1915년 귀국했을 때, 언론은 '서양화가의 호시'라고 떠들어 댔다. 하지만 1921년 《서화협회 회보》 제1호에 발표된 서화협회 회원들의 면면과 이후 활동을 살펴보면 서화협회의 주도세력이 오세창·안중식·이도영으로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은 감십정면, 대한자강회, 대한협회의 운동흐름에 함께해왔던 인물들로 지방의 주요 화가까지 참여한 전국적인 미술단체인 서화협회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고희동의 자서전에서는 서화협회가 민족적 색채를 띤 미술단체로서 일본인들이 주도한 조선미전과는 대립하고 있었다고 밝

혔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조선미전과 서화협회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다. 독립과 자치 사이에서 갈등했던 오세창·최린 등은 타협과 비타협을 넘나드는 민족주의자로서 서화협회를 이끌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비평활동에 대한 재조명도 하나의 결실이다.

"비평활동의 핵심은 문제의식에 있어요. 일제시대의 비평 및 이론활동은 무시돼왔습니다. 그러나 김복진·김용진·윤희준 등의 비평이 보여주는 당대의 문제의식은 해방 후의 비평보다 오히려 그 수준이 높습니다."

4년 동안 국회도서관과 각 대학도서관을 돌아다니고 마이크로 필름과 영인본의 이지러진 글자들을 맞추면서, 최열씨는 이 책이 '한국근대미술의 그림지도'가 되길 바랐다. 사람과 사건이 보이고 작업실 풍경과 교육기관, 미술관이나 박물관, 전람회 풍경은 물론 술한 이론가들이 모인 사상의 전당도 보일 수 있도록, 또 시대의 움직임과 그에 대응하는 미술가의 의식, 집단의 활동과 흐름에 새로운 지명을 붙이고 싶었다.

역사와 지도는 거기에 길이 있다는 점에서 닳았다. 그리고 그 길은 닦는 대로 열려 있다. '국립근대미술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근대 작품만 280여점 모은 '근대를 보는 눈'(국립현대미술관) 전시회에 실행위원으로 참가한 것, 현대인의 감각에 맞게 풀이한 《사군자감상법》의 출간을 준비하는 것은 모두 근대 미술이라는 지도와 역사 위에 길을 닦는 일이다.

— 이현주 기자